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 완료 사례 공개

대학 우수 자원 지역 환원 ‘주목’

삼우경로당 입주식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
학부생 대거 참여해
현장 기반 실습 실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 공간복지 구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 노인가구 및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첫 완료 사례인 '삼우경로당' 입주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주식은 전북대 주거환경학과가 주관하고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지역 산업체가 협력하여 진행됐다. 입주식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비롯해 전주시청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전북대 교수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공간을 둘러보며 그 의미를 나눴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는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 환원하고자 2023년부터 취약계층 주거공간 및 노후 공공공간 개선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인주택 2곳과 경로당 1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중 삼우경로당이 첫 완료 사례다.

이번 경로당 공간개선사업은 전주시청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어르신 맞춤형 공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실측·조사, 공간 진단,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 공간복지 구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 노인가구 및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첫 완료 사례인 '삼우경로당' 입주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정을 학과가 직접 수행했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는 2023년에도 전주시청과 협력해 경로당 공간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학과 동아리 '이음'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실증사업과 연계한 사회참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학과는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모델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식을 가진 삼우경로당은 노후화와 안전 미비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컸던 공간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삼우경로당 소병서 회장은 "예전에는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벽이 지저분했고, 문이 망가져서 사용하기 불편했다. 화장실 손잡이도 반대로 설치되어 있어 늘 조심해야 했는데, 이번에 수리하고 나니 모든 공간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바뀌었다. 벽지나 장판도 새로 교체되어 어르신들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학과 교수진뿐 아니라 학부생이 대거 참여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현장 기반 실습과 재능기부를 동시에 실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활동에는 주거환경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주거환경학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과학계열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일찍이 현장을 경험하고 전공의 사회적 가치를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에도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개선 공정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실질적 경험을 쌓았다.

장미선 학과장은 "대학이 가진 인적·학문적 역량이 지역사회와 만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한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지자체-지역기관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반도체 복합 나노구조체 제작 ‘두각’

전북대 임대영 박사, 국립금오공대 조교수 임용



전북대학교 G-램프(LAMP)사업단 소속 임대영 박사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첨단산업융합학부(반도체 공학전공) 조교수에 임용됐다.

임 박사는 2012년 전북대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전자정보재료공학과에서 2021년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박사후연구원(포닥)으로 연구에 매진하며 △박사후국내연수사업(1억 8,000만원, 3년)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6억원, 3년) 등 주요 정부 연구과제를 주도하며 연구 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전북대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에서 LAMP 포닥으로 활동하며 MOCVD 기법을 이용한 궤적-질화물 반도체 소재 기반 복합 나노구조체 제작 및 고효율 나노 광전소자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나노·반도체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SCI(E)급 논문 9편을 발표한 임 박사는 △New Change Carrier Transport-Assisting Paths in Ultra-Long GaN Microwire UV Photodetector (IF 18.5, JCR 상위 4.35%) △External catalyst-free InGaN photoelectrode for highly efficient energy conversion and H₂ generation (IF 13.3, JCR 상위 3.71%) 등 우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임 박사는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철로 지도교수님과 라용호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교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후배 연구자들도 꾸준히 정진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박사는 앞으로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수요 기반 인재 양성과 차세대 나노·반도체 기술 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 대학생·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전북대 중앙도서관, '논문 작성 특강' 마련… 내달 4-6일 진행

20일부터 100명 사전 신청 모집'… 해당일에 50명 현장접수도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현)이 전북지역 대학생과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논문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도서관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주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에서 '논문작성 집중 특강'을 개최기로 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00명을 사전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특강 해당일 50명에 한해 현장 접수도 받는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에는 전북대 학생은 물론 도내 대학(원)생과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특강은 논문 구성과 연구계획 수립부터 학술지 투고 전략, 심사 대응, 최신 AI 도구 활용까지 실제 연구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강의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1월 4일 △인문사회계 논문작성법 및 투고 전략(전성욱 글로벌 대표), 11월 5일 △이공계 논문작성법 및 투고

전략(윤석훈 교수), 11월 6일 △논문 이해·작성법 및 AI 기반 영어논문 작성(윤석훈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각 강의에서는 연구계획서 작성법, 학술지 선택과 투고 준비 절차, 심사의견 대응 전략 등 논문 출판 전 과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며 연구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6일 강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챗GPT(ChatGPT)를 활용한 학술 글쓰기 방법을 소개해 국제 학술지 투고를 준비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마련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명에게 전문가 1대1 논문 코칭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전북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nu.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첨부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역에너지클러스터분야 인재 양성

국립군산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호 협력 강화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수소 및 에너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협력 활동을 통한 이차전지 부트캠프 및 전북지역에너지클러스터분야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교육발전 등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장민석 산학협력단장, 심종표 교수(화학공학과), 이상규 교수(이차전지에너지학부)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측에서는 김미성 본부장(이차전지에너지본부), 권기진 센터장(전력



에너지센터), 박일우 연구원(전력에너지센터)이 참석해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차전지부트캠프인력양성 및 전북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교육·연구 인프라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사업의 참여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군산·립만호 기자

전주교대, '제1회 황학 꿈나무 동요축제' 개최

내달 14일까지 참여 신청접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초등학생의 음악적 소양을 높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9일, '제1회 황학 꿈나무 동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요축제는 어린이의 음악적 감수성 함양 및 어린이 동요 대중화를 위해 지역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동요 경연무대와 더불어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학생들과 전문 연주인들의 연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예술적 공간을 마련하여 서학지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 방문객 유입에도 힘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1회 황학 꿈나무 동요축제는 도내 소속의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1월 14일까지 이메일 접수 신청을 받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교장 대상
신산업 진로교육 관리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탐색으로 초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국립청소년 바이오생명센터에서 초등 교장 60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신산업 진로교육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급변하는 미래산업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탐색하고, 학교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첨단바이오·디지털기술·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미래농업 등 신산업 분야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오는 21일에는 2층 강당에서 초등 교원 14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미래 설계, 초등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개최하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업체 전문가

연계 현장투게더'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7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휴먼라이프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체 전문가 연계 현장투게더(Together)'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돌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투게더'에서는 △노인돌봄 분야에 덕진노인복지관 하갑주 관장과 브레인요양병원 전병인 팀장, △장애돌봄 분야에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 기은하 관장과 은누리노인종합복지관 박수진 관장, △가정돌봄 분야에 전주시가족센터 이해경 센터장이 참여해 공동 교육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추천접수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등서 5년 이상 재직 중 교원 대상

20일부터 전북 지역 훌륭한 교직원을 발굴하는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추천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직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전북 교육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교육 현장의 숨은 스승을 발굴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지역 교육계 인사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가 주관하며, 전주현대육과 아미존 완주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8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초·

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시상 부문은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대안학교 교직원 중 모범이 되는 8인을 선정해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 각 10인 이상, 총 50인 이내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하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증명자료 등을 이메일(www.arundar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화려한 스펙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직원을 조명함으로써, 스

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두재균 위원장(전북대학교 제14대 총장)은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 이상의 취지"라며 "교직원은 자부심과 보람을, 학생과 학부모는 존중과 신뢰를,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www.arundari@naver.com) 또는 전화(집행위원장 이강선 010-9215-8585, 사무총장 박효정 010-9627-17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아이의 시선,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IB 교육’

전북교육청, IB 미래교육 포럼… IB 철학 이해·공감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B 미래교육 포럼(주제: 아이의 시선,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IB 교육)'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IB 철학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교 현장의 수업·평가 혁신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산하

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IB 교육 전문가, 학부모, IB DP(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등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IB의 의미와 사례를 나눴다.

특히, IB DP 과정의 수업과 평가 사례, IB 활동을 통한 대학 진학 사례 등 실질적인 내용이 공유되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교원 취업역량강화·현장실습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라한호텔에서 '2025년 직업계고 교원 취업역량강화 및 현장실습 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는 도내 31개 직업계고 교장, 교감, 취업담당자, 전문교과 및 보통교

과 교사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중등 직업교육 정책 이해 △현장실습 운영 전략 △학생 취업 지도 전략 △기급 발굴 및 산학협력 사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우수

사례 △특성학교 홍보 방안 등으로, 교원들의 현장실습 운영 능력과 취업 지도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취업지도 및 현장실습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